

구약논찬

제 17권 1호(통권 39집) 2011년 3월 31일

박철우(나사렛대) 히에로니무스의 전도서 1장 1-11절 번역과
주석의 특징에 관한 연구 108

본 논문은 전도서 1장 1-11절에 대한 히에로니무스의 주석과 번역의 특징에 대한 연구이다. 이 논문을 통해 저자는 히에로니무스가 이미 1600년 전에, 현대 해석학에서 재발견하고 있는 수사학적 정밀분석과 목표언어의 고유성에 대한 배려, 최종본문의 내용적 문학적 구조의 관찰 등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음을 보인다.

Park, Cheol Woo A Study on the Particularities of Jerome's Translation
and Exegesis of Eccl 1: 1-11 108

히에로니무스의 전도서 1장 1-11절 번역과 주석의 특징에 관한 연구

박 철우 | 나사렛대

1. 서론

현대 성서해석은 저자 중심에서, 텍스트 중심으로, 그리고 그 텍스트를 독자 중심으로 읽는방법으로 변천해 오면서 각각의 접근법이 갖고 있는 장단점을 바탕으로 상호 보완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접근법에서 공히 요구되는 것은 텍스트의 세부적 분석 (close textual analysis; close reading[정밀독서])이다.¹⁾ 이 정밀독서는 텍스트의 본래의 의미 특히 히브리적 의미에 대한 이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본문이해이다.

히에로니무스의 성경번역과 주석은 이 두 가지 관심, 곧 히브리 본문의 의미와

1) 수사비평에 대한 C. C. Black의 정의는 close reading의 정의와 거의 동일하다. 참조 C. C. Black, "Keeping Up with Recent Studies, pt. 16: Rhetorical Criticism and Biblical Interpretation," *ET* 100(1989), 252-258쪽; W. Wueller, "Where Is Rhetorical Criticism Taking Us?," *CBQ* 49(1987), 448-463쪽; M. Fishbane, *Text and Texture: Close Readings of Selected Biblical Texts*, 1979.; Tribble은 이 모든 것을 수사학의 범주에 넣는다. 참조 Phyllis Tribble, *Rhetorical Criticism: Context, Method, and the Book of Jonah*, (Augsburg : Fortress, 1994); 「수사비평: 역사, 방법론, 요나서」 (유 연희 역)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07); 넓은 의미에서 정밀독서는 현대 성서문학분석의 대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긴 하나, 여기에서는 본문의 어휘의 의미, 문법구조, 내용진개의 특징들을 세부적으로 관찰한다는 의미에서 수사학적 분석과 같은 범주로 이해한다.

본문의 세밀한 관찰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히에로니무스는 약 1600년 전 이러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오리게네스 이래로 성서 해석학상 획기적인 도약을 이루어 낸 성서학자이다. 그의 번역과 해석의 특징은 이 시대의 성서해석을 위해서도 많은 영감을 제공한다. 히에로니무스는 388-389년에 전도서 주석을 집필하였고, 불가타의 전도서 번역은 398년경에 이루어졌다.²⁾

히에로니무스의 주석과 번역에 대한 개괄적 특징과 그 중요성에 관한 연구는 브라운(D. Brown)에 의해서 잘 전개되었다.³⁾ 그에 앞서 제이(P. Jay)도 히에로니무스의 주석의 특징을 간략하게 소개한 바가 있다.⁴⁾ 브라운의 저서는 비록 개괄적이긴 하지만 이 주제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작업이다. 특히 그는 히에로니무스가 다른 고전의 번역의 경우와는 달리, 성서를 번역함에 있어서 문자대 문자(word for word)의 번역을 선호하였으나, 히브리어와는 다른 헬라어나 라틴어의 고유한 언어적 특징으로 인하여 또는 그의 문학적 경향과 신학적 교회적 상황에 대한 고려로 인하여 그의 번역원칙을 고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하였다.⁵⁾ 물론 이 지적이 전체적으로는 옳으나, 그가 문자적 번역원칙을 고수하는데 있을 수 있었던 어려움은 단순히 수동적 차원의 어려움을 넘어선다. 히에로니무스는 그 당시에 헬라-라틴어 문화의 영향권에서 평가 절하되어있던 히브리 성경의 문학적 탁월성을 그의 라틴어 성경에 잘 반영시키고자 오히려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가 유지하려했던 문자적 번역원칙고수의 이면에는 이렇게 적극적인 문학적 의도도 내포되어있었다.⁶⁾ 전도서의 주석과 번역에 관해서 살레스(José Boira Sales)는, 부분적이긴 하지만, 히에로니무스

2) D. Brown, *Vir Trilinguis. A Study in the Biblical Exegesis of Saint Jerome*, (Kampen: Kok Pharos, 1992); R. E. Murphy, *Ecclesiastes* (WBC), (Dallas: Word Books, 1992), xxvi; S. Hieronimi Presbiteri Opera, Corpus Christianorum: Series Latina LXXII, (Turnholti: Brepols, 1959), 247쪽.

3) 윌글. D. Brown, *Vir Trilinguis*.

4) P. Jay, "Jérôme et la pratique de l'exégèse," J. Fontaine - Ch. Pietri(eds.), *Le monde latin antique et la Bible*, (Paris, 1985); P. Jay의 중요한 공헌은 히에로니무스의 이시야 주석의 특징을 검토한 것이다. 참조 P. Jay, *L'exégèse de saint Jérôme d'après son Commentaire sur Isaïe*, (Paris, 1985).

5) 윌글. 108-120쪽.

6) D. Kelly, *Jerome, His Life, Writings, and Controversies*,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975); 박 철우, "시편 1-3편의 본문 분석을 통해 살펴본 불가타 번역의 특징," 『성경원문연구』 24호 (2009년 4월), 34-53쪽.

전도서 주석의 스페인어 번역에서 히에로니무스의 해석학적 특징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⁷⁾ 필자는 본 논문에서 전도서 1장 1-11절에 대한 히에로니무스의 두 번역과 주석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현대 성서해석학의 관점에서 검토하며 그 현대적 중요성과 유용성을 고찰하고자한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특별히 전도서 1장 1-11절에 대한 히에로니무스의 주석과 번역의 특징을 절별로 검토하고자한다.⁸⁾

2. 히에로니무스의 전도서 1장 1-11절 번역과 주석의 특징

1) 1절의 번역과 주석의 특징

1a절에서 히에로니무스는 그의 주석과 불가타 번역에서 히브리성서(דָּבִיד בְּרִישָׁתוֹ מֶלֶךְ בְּיַרְדֵּן קִהְלֹת בְּן־דָּוִד מֶלֶךְ בְּיַרְדֵּן)의 어순을 그대로 따른다(Verba Ecclesiastae filii David regis Ierusalem). 그의 라틴어 번역에서 히브리어 어순을 맞추기 위하여 속격인 filii를 David 앞에 위치시키고 마찬가지로 속격 regis를 Ierusalem앞에 위치시킨다. 이러한 면모는 70인역과 같다. 그러나 70인역에는 전도자가 이스라엘의 왕임이 명시된다(βασιλεύς Ἰσραὴλ, king of Israel). 고대 라틴어역(Vetus Latina)은 70인역을 따라 ‘이스라엘’을 첨가하고 있다. 그러나 히에로니무스는 히브리어 원문을 따르면서 그 나름의 고유한 해석을 내린다.

히에로니무스는 그의 전도서 주석에서 그 당시의 일반적 이해에 따라 ‘잠언과 전도서와 야가를 솔로몬의 책으로 본다. 그리고 이 세권의 책들의 ‘순서’도 고유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정경의 순서 자체에서 그 신학적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는 최근의 성서학계의 중요한 시도중의 하나이다(compositional approach).⁹⁾ 우선 ‘잠언’은 윤리적이고 격언적인 가르침을 아이들에게 주는

7) Jerónimo, *Comentatio al eclesiastés: Introducción, traducción y notas de José Boira Sales* (Biblioteca de Patristica 64), (Madrid: Ciudad Nueva, 2004), 16-21쪽.

8) 전 1장 1-11절에 초점을 맞추어 히에로니무스의 번역과 주석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본문은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한정되었다. 우선은 논문의 지면의 한계 때문이다. 그러나 히에로니무스는 1-11절까지를 서두로 보며(praefatio; 참고, 히에로니무스의 12절의 주석), 전도자가 이 서두에서 모든 문제들을 일반적으로 다루었음을 지적하고, 12절에서 다시 전도자 자신에게로 돌아와 그가 누구이며 어떤 경험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는지에 관해 말한다고 서술한다. 이와 같이 내용이해를 통해서 본문의 전체적 구조를 파악하는 면모는 그의 성경해석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cf. 3절 주석).

것을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며, '전도서'는 성숙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어진 솔로몬의 말씀으로 본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적인 것에는 영원한 것이 없으며 세상의 모든 것이 덧없다는 것을 가르친다. '아가'는 이러한 세상적인 것에 대한 애착을 극복하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버리고 세상의 호사를 거절하여 그리스도와 의 만남을 준비한 사람들을 향한 가르침이다. 히에로니무스는 이 세 권의 책의 이러한 내용적 특징을 그 당시 철학계에서 행해지고 있던 세 구분과 연결하여 이해한다. 이 책들이 마치 철학자들이 처음에 윤리학(ethica)을 가르치고, 이어서 물리학(physica)을 설명하며, 이러한 것을 다 마친 사람들에게 철학과 신학(logica; theologica)을 가르친다는 지식교육의 플라톤적 3단계에 비유한다(Haud procul ab hoc ordine *doctrinarum* et philosophi sectatores suos erudiunt: ut primum *ethicam* doceant, deinde *physicam* interpretentur; et quem in his profecisse perspexerint, ad theologicam usque perducant).¹⁰⁾ 그는 이러한 헬라적 이해를 성경해석에 적용함으로써 성경적 진리가 헬라적 진리 이상의 것임을 증명하려 시도한다.¹¹⁾

특히 그는 이 세권의 책의 서두 곧 저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의 서두를 잘 관찰해야한다고 주장한다(Necnon, et hoc diligentius attendendum, quod per tres libros auctoris, diversus est titulus). 주의 깊게 관찰해야한다는 말(hoc diligentius attendendum)은 현대 주석의 정밀독서(close reading)에 해당된다고

- 9) D. M. Howard, Jr. "Recent Trends in Psalms Study," D. W. Baker and B. T. Arnold (eds.), *The Face of Old Testament Studies: A Survey of Contemporary Approaches*, (Grand Rapids: Bakers, 1999), 329-368쪽; J. Clinton McCann, Jr., "The Shape of Book I of the Psalter and the Shape of Human Happiness," *The Book of Psalms: Composition and Reception* (VTSup 99), Peter W. Flint, et al.(eds.), (Leiden: Brill, 2005), 340-48쪽; John H. Walton, "Psalms: A Cantata About the David Covenant."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34/1(March 1991), 21-31쪽; 유 윤종, "시편의 최근연구동향," 『구약논단』 32집 (2009년 6월), 30-62쪽. James Nogalski, *Literary Precursors to the Book of the Twelve* (BZAW 217), (Berlin: Walter de Gruyter, 1993); idem. *Redactional Process in the Book of the Twelve* (BZAW 218), (Berlin: Walter de Gruyter, 1993); P. R. House, *The Unity of the Twelve* (JSOTSup. 97), (Sheffield: Almond, 1990).
- 10) 오리게네스의 영향을 받은 이해이다. 참조 Jerónimo, *Comentario al Eclesiastés: Introducción, traducción y notas de José Boira Sales*, 46쪽; cf. *S. Hieronymi presbiteri opera*, Pars I. Opera exegetica, Corpus Christianorum, Brepols, 1959, 251쪽.
- 11) 이것은 오리게네스의 신학활동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다. 참조 Orígenes, *Comentario al cantar de los cantares: Introducción y notas de Manlio Simonetti; Traducción del latín de Argimiro Velasco Delgado*, (Biblioteca de Patrística 1), (Madrid: Ciudad Nueva, 2007), 8-13쪽.

할 수 있다.

히에로니무스는 이 세권의 서두를 인용한다:

잠언: Proverbia Salomonis filii David, regis Israel
전도서: Verba Ecclesistae filii David, regis Ierusalem
아가: Canticum canticorum Salomonis

그리고 전도서에서, 70인역과 고대 라틴어역(Vetus Latina)에 Israel(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잘못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Superfluum quippe est hic Israel, quod male in Graecis et Latinis codicibus invenitur). 이를 통하여 그는 '히브리 원문 표현'(veritas hebraica)를 선호하는 그의 주석적 특징을 보여준다. 그리고 아가에서는 단지 '솔로몬의 아가리는 말만이 나온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 신학적 의미를 설명한다.

히에로니무스에 의하면, 각책의 서두에 언급되어 있는 대로, 잠언은 12지파 곧 전체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적 가르침에 해당된다는 의미에서 이스라엘(Israel)이라는 말이 언급되어있다고 본다. 여기에서 그에게 이스라엘은 무지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을 가리킨다(nudis institutio, the instruction of the rude). 전도서에는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고 예루살렘(Jerusalem)이 나오는데, 이것은 인간특성의 그 다음 단계인, 세상적인 것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며,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나타낸다고 본다. 이 사람들은 민족 전체로서의 이스라엘과는 구별되는 더 작은 소수집단에 해당된다. 그리고 아가에는 아무런 지명도 언급되어 있지 않는데, 이것은 이 말씀의 대상들이 이 모든 과정을 뛰어넘은 최소의 정예로서 하늘의 것만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나타낸다고 해석한다. 이 세권의 책의 서두 자체가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을 점층적으로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다. 아가의 대상은 국가의 부권적 명령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히에로니무스는 이러한 사람들을 완전한 사람들(perfectos)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들은 권위와 경외에 의해 가르쳐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통하여 가르쳐지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본다(Ad perfectos vero, ubi non timore eruditur discipulus, sed amore, proprium nomen sufficit). 히에로니무스는 이러한 이해를 본문에 대한 세밀한 관찰을 바탕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문자적 의미에 대한 그의 해석이다(Haec interim juxta litteram).

그리고 이어서 영적(기독교론적) 의미에 대한 그의 해석을 전개한다(Caeterum secundum intelligentiam spiritualem).¹²⁾ 그의 주석 서두에서 언급한 솔로몬의 두 이름과 관련된 의미(솔로몬 שלמה 평화 pacificum; 여디드야 יְדִידָא דְּיְהוָה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 dilectum Domini)를 다시 언급하면서, 전도서에 나오는 이 솔로몬은 우리의 주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설명한다(Pacificus et dilectus Dei Patris, et Ecclesisates noster est Christus). 이 해석을 위해 그는 요 14장 27절(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과 마 3장 17절(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를 인용한다.

그의 해석의 특징은 문자적 의미를 확실히 밝히고, 이어서 그것이 갖는 비유적 의미를 시도한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이 전개 방식은 아가의 서두에 대한 오리게네스의 해석 방법과 유사하다. 그러나 히에로니무스는 문자적 해석과 영적해석사이의 구분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 있으며, 그의 번역과 주석에서 70인역 대신 히브리본문 표현을 선택하는데도 더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특징을 보여준다.¹³⁾

2) 2절의 번역과 주석의 특징

히에로니무스는 2절(MT: הַבַּל הַכֹּל הַבְּלִיָּה קָהָל אֱמָן הַבְּלִיָּה כָּהֵן)을 그의 주석과 불가타에서 동일하게 vanitas vanitatum dixit Ecclesiastes vanitas vanitatum omnia vanitas라고 번역하고 있으며, 이것은 70인역의 구조와도 일치한다: Ματαιότης ματαιότητων, εἶπεν ὁ Ἐκκλησιαστής, ματαιότης ματαιότητων, τὰ πάντα ματαιότης. 그러나 어휘선택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차이를 보여준다. 70인역은 헤벨(הַבְּלִיָּה)을, 주로 허무(vanity)로 번역되는 추상명사 ματαιότης로 번역한다.¹⁴⁾ 그러나 히에로니무스는 이것을 70인역과는

12) D. Brown, *Vir Trilinguis*, 140–143쪽. 여기에서 히에로니무스의 영적(‘spiritualem’)해석은 내용상 기독교론적 해석을 가리킨다.

13) Jerónimo, *Comentario al Eclesiastés: Introducción, traducción y notas de José Boira Sales*, p. 47; Orígenes, *Homilías sobre el cantar de los cantares: Introducción, traducción y notas de Samuel Fernández Eyzaguirre*, (Madrid: Ciudad Nueva, 2000), 45–46쪽; 히에로니무스는 일차적으로 히브리어본문을 확실히 선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독교론적 해석을 행한다(“2절의 번역과 주석의 특징” 참조).

14) ματαιότης: “emptiness, futility, purposelessness, transitoriness.” 참조 W. Bauer,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emp

다른 번역 전통에 동의(同意)하여 Ἄτιμος ἀτιμίδων 또는 ἀτιμῶν로 이해하고, 이것이 급히 사라져 버리고 미는 vapor(수증기, 김, 연기[물질명사]) 또는 aura(바람, 공기)로 번역할 수 있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quod nos possumus vaporem sumi et auram tenuem, quae cito resolvitur, appellare).¹⁵⁾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이 말이 덧없고, 일반적이지 않은 것을 가리킨다고 말한다(caducum et nihil universitatis). 이것이 ‘헤벨’의 본래적 의미이다. ‘헤벨’의 히브리적 의미는 마치 공기와 같이 실재하나 잡을 수 없는 것, 덧없는 것을 가리킨다.¹⁶⁾ 히에로니무스는 일차적으로 본문의 히브리적 의미를 선택하고 이어서 이것의 기독교적 의미를 해석해 낸다. 히에로니무스는 고후 4장 17절과 롬 8장 20, 22, 19절의 내용을 언급하고 고전 13장 9절을 언급하면서 온전한 것이 오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결론을 언급한다(고전 13:10).

מְהִלָּה מְהִלָּה의 해석과 관련하여, 히에로니무스는 이것을 허무하고 덧없음을 강조하는 강세용법으로 이해한다. 이것은 canticum canticorum(the song of the songs; el cantar de los cantares)의 최상급적 용법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 표현이 아가가 모든 시(詩)중의 으뜸임을 나타내는 것처럼, מְהִלָּה מְהִלָּה(vanitas vanitatum)을, 시 39장 6절을 인용하며 가장 큰 허무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이것은 오리게네스의 아가서 설교에 나오는 해석이다. 오리게네스는 그의 아가서 설교에서 이 표현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안식일중의 안식일(שַׁבָּת שַׁבָּת[sabbatum sabbatorum], the sabbath of sabbaths; 레 16:31; 23:32), 거룩 중의 거룩(שֶׁנִּיְהוָה שֶׁנִּיְהוָה[sanctum sanctorum], the holy of holies: 레 2:3)이라는 표현 구조와 비교하며 이 표현(canticum canticorum)의 의미를 추론한다. 이렇게 표현의 구조적 특징을 검토하는 것도 매우 세련된 정밀독서(close reading)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¹⁷⁾

tinness, vanity.” 참조 J. Lust/E. Eynikel/K. Hauspie (eds).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Septuagint*,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3).

15) 70인역 이외에 모든 번역이 이 단어(מְהִלָּה)를 Ἄτιμος로 번역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 번역은 아킬라, 십마쿠스, 테오도시온 등에 나타난다. 참조 F. Field, *Originis Hexapla*, II, (Hildesheim: Georg Olms Verlagsbuchhandlung, 1964), 380쪽.

16) Douglas B. Miller, *Symbol and Rhetoric in Ecclesiastes: The Place of Hebel in Qohelet's Work*,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2), 54-61, 98쪽; Étienne Glasser, *Le procès du bonheur par Qohelet*, (Paris: Les éditions du CERF, 1970), 19쪽.

17) Origenes, *Homilias sobre el cantar de los cantares*, 45-46쪽.

3) 3절의 번역과 주석의 특징

히에로니무스는 3절(MT: **מִהֲיִתְרוֹן לְאִשְׁרָם בְּכֹל עֲמָלָיו שְׂעָמָל תַּחַת הַשָּׁמַשׁ**)을 그의 주석에서 히브리 어순을 그대로 살리며 번역하였다(Quid superest homini in omni labore suo, quo laborat sub sole). 이것은 70인역과 유사한 것이다. 히에로니무스는 불가타에서 **מִהֲיִתְרוֹן לְאִשְׁרָם בְּכֹל עֲמָלָיו**를 quid habet amplius로 번역하여 라틴어 사용자의 이해의 편리를 도모하였다. 이 표현은 70인역에서 Τις περισσοεια τῷ ἀνθρώπῳ (What advantage [is there] to a man)으로 번역되었다. 그의 주석에서의 번역인 quid superest homini는 70인역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그러나 불가타에서는 히브리어의 의미 특히 전치사 (르)가 갖는 소유의 의미를 더 자연스러운 라틴어 표현인 quid habet amplius(what advantage does he have)로 번역하였다. **עֲמָלָיו בְּכֹל־**의 경우도 주석의 직역에 가까운 표현(in omni labore suo)대신 불가타에서는 quid habet amplius에 맞추어 de universo labore suo로 번역하였다. 불가타에서는 번역의 목표언어(target language)인 라틴어의 보편적 어법에 따라 독자 중심의 평이한 번역을 선택한 것이다.

그의 주석에서, 문맥 안에서 2절의 역할을 언급하고 2절과 3절과의 내용적 연관관계를 밝힌다. 2절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일반적이고 전체적인 선언 즉 총론적 선언에 해당되고, 이를 바탕으로 3절에서는 이것에 대한 각론의 일부로서 인간의 모든 노고가 헛되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이 부분의 내용의 구조적 특징을 설명한다. 이것도 현대 주석이 요구하는 내용적 설명에 해당된다. 이어서 인간의 모든 일들이 헛되고 덧없음을 설명한다. 인간은 그가 죽을 때 그가 행한 모든 일 가운데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다. 단지 적신인 채 흙으로 돌아갈 뿐임을 강조한다(maxime cum ex omni labore nihil secum ferant, sed nudi in terram redeant, unde sumpti sunt).¹⁸⁾ 눅 12장 20절의 인용을 통해 세상 것에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가르친다(“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

18) 내용상 전 5: 15-16을 반영하며, 욥 1: 21과도 연관되어있다.

4) 4절의 번역과 주석의 특징

4절(MT: **וְהָיָה הַלְךָ וְהָיָה בָּא וְהָיָה לְעוֹלָם עֲמֻדָּת**)에 대한 히에로니무스의 불가타 번역(*generatio praeterit et generatio advenit terra vero in aeternum stat*; cp. 주석에서의 번역: *Generatio vadit, et generatio venit; et terra in saeculum stat*)은 어순과 의미를 히브리어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히에로니무스는 여기에서도 세상사의 덧없음에 관한 이해를 전개한다.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땅'은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 그 땅의 주인인 '사람 자신'은 어느 날 갑자기 흙으로 변하는 허무함과 덧없음을 언급한다.

이어서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영적(기독교론적) 의미를 설명한다. 특히 한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옛 세대가 가고 새로운 교회의 시대가 왔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역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히에로니무스는 이어서 마 24장 14, 35절을 인용함으로써 종말의 때가 오게 될 것이라는 말을 첨가한다("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종말의 때에 하늘과 땅이 사라지리라는 마 24장 35절의 말씀(*Imminente vero consummatione, coelum et terra pertransibunt*)을 언급하며, 여기에서 땅이 서있다는 말이 종말 이전의 시대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도서에서 땅이 '여러 세대동안'(in saeculis[**סְעֻלָּוּת**/복수형])가 아니라 '한 세대동안'(in saeculo[**סְעֻלָּוּת**/단수형]) 서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한 해석이다(*Et signanter non ait: Terra non saeculis stat, sed in saeculo*).¹⁹⁾ 여기 전 1장 4절에서 **סְעֻלָּוּת**(in saeculo)이 '복수'(**סְעֻלָּוּת**: in saeculis; 여러 시대를 통하여)가 아니라 '단수'로 표현되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이러한 구별을 바탕으로 in saeculo는 현재의 시대를 가리키고 in saeculis는 영원함을 나타낸다고 본다. 즉 이 전도서 본문에서 **סְעֻלָּוּת**(in saeculo)은 단수로 표현되어있고 따라서 종말(consummatio) 이전시대 즉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 전의 시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구별은 디뮈무스의 주석에서 볼 수 있는 것이며 히에로니무스에 의해 채용된 것으로 보인다.²⁰⁾ 물론 히브리어에서 복수형인 '올라핌'이 강세적 의미로 사용되

19) 히에로니무스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이 지상 세대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것임"도 강조한다(*Porro laudamus Dominum, non in uno saeculo, sed in saeculis saeculorum*).

20) Jerónimo, *Comentario al Eclesiastés*, 51쪽.

이 세상의 삶의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히에로니무스는 이어서 영적(기독교적)의미를 설명할 때 시작하는 그의 전형적 서두어 *aliter*를 기점으로 또 다른 의미를 피력한다. 여기에서 히에로니무스는 해(sol)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는 말 4장 2절의 해(שֶׁמֶשׁ)를 치유(구원)²³⁾의 하나님(Deum) 그리스도로 보고, 이 해가 그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태어나고 거짓 예언자들을 위해²⁴⁾ 한 낮에 죽는 것으로 이해한다(*Sol justitiae, in cujus alis est sanitas; timentibus Deum oritur, et pseudoprophetis occidit meridie*). 그리고 요 12장 32절을 근거로 그 해 곧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 땅에서 하늘로 올려 보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한다(*Ad hoc enim venit, ut nos de terris ad coelum levet, et dicat: Cum exaltatus fuerit Filius hominis, omnia trahet ad se* (Joan XII).

6) 6절의 번역과 주석의 특징

6절(MT: הוֹלֵךְ אֶל-קְרוֹם וְסוּבֵב אֶל-צְפוֹן סוּבֵב סוּבֵב הוֹלֵךְ קְרוֹם)에 대한 히에로니무스의 번역(불가타)은 다음과 같다: *gyrat per meridiem et flectitur ad aquilonem lustrans universa circuitu pergit spiritus et in cirulos suos regreditur*. 불가타 이전에 그는 그의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Vadit ad austrum, et girat ad aquilonem: girans girando vadit spiritus, et in circulos suos revertitur spiritus*. 이 번역은 불가타에 비해서 더 직역이며 히브리어의 구조에도 충실하다. 불가타 번역은 그의 주석적 이해를 전제로 상당히 의역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우선 그의 주석에서 히에로니무스는 전도자가 해를 *spiritus*(바람)이라고 칭하고 있다고 말한다(*ipsum solem spiritum nominavit*). 이 해석은 디뎀무스에게서도 볼 수 있는 해석이다.²⁵⁾ 이 절은 태양의 일일 행정을 다루는 앞절과 달리 태양의 일년주기의 행정을 다룬다고 본다. 그 당시에는 지구가 평평하며 태양은 겨울에 남쪽으로 더 내려가고 여름에 북쪽으로 더 올라와서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다고 이해하였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여름에

23) José Boira Sales는 이것을 구원으로 번역한다. 52쪽.

24) 거짓 예언자들(*pseudoprophetis*: “para los falsos profetas”)은 문맥상 죄된 모든 인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cf. 요 12:32; 히에로니무스의 전 1:6 주석참조); Jerónimo, *Comentario al Eclesiastés*, 52쪽.

25) Jerónimo, *Comentario al Eclesiastés*, 53쪽.

태양과 지축이 수직이 되고 태양이 더 높이 떠서 뚝으로 낮이 길다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히에로니무스는 역시 비르길리우스(Virgilius)의 표현을 언급하면서 마치 태양은 일년동안 큰 원을 그리면서 도는 생명체와 같은 것으로 설명한다.²⁶⁾ spiritus가 천체들 속에서 생명력이 되어 그것들을 움직인다는 비르길리우스의 말도 인용한다. 이러한 인용을 통하여 여기에서 간접적으로 해를 spiritus로 부른 이유를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이 있는 후, 히에로니무스는 이절의 주석에서도 aliter라는 말로 기독교적 해석의 시작을 알린다. 히에로니무스는 태양이 남쪽으로 갈 때 땅에 가까이 있게 되며 북쪽으로 갈 때 더 높이 뜬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 정의의 해(태양, sol iste justitiae) 곧 예수그리스도는 겨울의 추위와 환란으로 짓밟힌 사람들, 곧 믿음의 열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 태양은 북쪽에서 여름의 태양열을 박탈당한 북쪽 사람들에게도 멀지만 태양빛을 비추어 주고 결국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 그들에게도 더운 열을 주게 된다고 말한다. 주님이 모든 것을 자기 안으로 끌어들이고(Cum enim traxerit omnia ad se) 그의 빛이 만민에게 비추면(et universos suis radiis illuminaverit)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회복(fit restitutio principalis)의 역사라고 말하며 고전 15장 28절을 인용한다(et est Deus omnia in omnibus). 그리고 심마쿠스의 번역을 인용함으로써 하나님은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게 될 것임을 강조한다(Vadit ad meridiem, et circumit ad boream; perambulans vadit ventus, et per quae circumierat, revertitur ventus). 히에로니무스는 ventus 대신에, 영, 기운, 숨 등을 포함하며 더 넓은 의미범주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 spiritus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그의 기독교적 이해의 경향으로 인해서, 70인역(πνεῦμα)을 재고(再考)한 선택으로 추정된다.

7) 7절의 번역과 주석의 특징

히에로니무스는 불가타에서 7절(כָּל־הַנְּהַלְמֵי הַלְּכִים אֶל־הַיָּם וְהַיָּם לֹא־מָלֵא מְלֵא אֶל־הַיָּם וְהַיָּם שֶׁהֵנָּה לִיּוֹם אֵין שְׁבִיּוֹם לְלֹאֲכֵם)을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omnia flumina intrant mare et mare non redundat ad locum unde exeunt flumina revertuntur ut iterum fluant. 이 절에 대한 그의

26) 윗글. 53쪽.

주석에서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Omnes torrentes vadunt in mare, et mare non impletur. Ad locum de quo torrentes exeunt, illic ipsi revertuntur, ut abeant.

히에로니무스는 여기에서 성경기자가 은유(metaphora)를 통하여 인간을 시내와 바다로 서술하고 있다고 말한다(Melius autem Hebraei sub torrentium et maris nomine per metaphoram de hominibus significari arbitrantur). 인간도 역시 그가 나온 땅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한다. 성경해석학적 차원에서 그는 성경기자가 은유도 사용하였다고 하는 성경이해를 보여준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그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고유의 사고(思考)특징과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성경관이다. 성경본문의 본래의 의미를 찾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의 본문이해와 합치되는 관점이다.

여기에서 강이라고 하지 않고(non flumina) 특별히 시내(torrentes)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빨리 소멸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70인역도 torrents에 해당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χεῖμαρροι).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빠르고 덧없이 세상을 떠나기 때문이다. 히에로니무스는 이 시내를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그것도 바다로 돌아가면 그곳에서 조용히 머무르게 될 것임을 말한다. 그의 주석에서 히에로니무스는 𐤍(나할)을 torrentes로 번역하면서 이것을 특별히 river와는 다른 것임을 강조한다(et torrentes vocentur, non flumina, eoquod cito intercident). 물론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구분은 가능하다. '나할'이 연중 항상 물이 흐르는 시내나 강을 가리킬 수 있다(레 11:9; 왕상 18:40). 그러나 이 단어가 구약에 약 140회 정도 나오는데 그 대부분은 우기에 세찬 급류로 흐르다가 비(非)우기에 마른 바닥을 드러내는 와디를 가리킨다.²⁷⁾ 히에로니무스는 그의 주석에서 이 말의 이와 같은 특징을 고려하여 torrentes로 번역하였고, 그의 주석도 이를 바탕으로 전개한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전개이다. 그러나 이 표현은 이 절에서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강이라는 개념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강(river)의 의미로 번역하는 역본도 많다.²⁸⁾ 히에로니무스는 그의 주석보다 후기의 번역인 불가타에서 이것을 flumina로 바꾸어 번역하고 있다.

27) L. J. Coopes, "𐤍," *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 vol. 2, (Chicago: Moody Press, 1980), 570쪽.

28) ASV, NASB, KJV, NKJV, NJB는 rivers로 번역하고 있고, RSV, NRSV, NIV는 streams로 번역한다. *Traduction Oecuménique de la Bible*는 les torrents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Nueva Biblia Española*는 rios로 번역하고 있다; William Sanford LaSor, "Wadi," *ISBE*, vol. 4, 1001쪽.

8) 8절의 번역과 주석의 특징

8절(**כָּל־הַדְּבָרִים יָגִיעִים לֹא־יִוָּכַל אִישׁ לְדַבֵּר לֹא־תִשְׁבַּע עֵין**)에 대한 불가타 번역은 다음과 같다: *cuncta e res difficiles non potest eas homo explicare sermone non saturatur oculus visu nec auris impletur auditu*. 그의 주석에서 히에로니무스는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Omnes sermones graves non poterit vir loqui. Non satiabitur oculus videndo, et implebitur auris auditu*.

사람은 어려운 문제들에 관해서 말로서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한다. 히에로니무스는 **יָגִיעִים**을 ‘어려운’(difficiles)이라고 해석한다. 그리고 **דְּבָרִים**을 ‘문제’, ‘주제’등의 의미로 해석한다. **יָגִעַ**는 weary 또는 wearisome 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단어이다. 신 25장 18절과 삼하 17장 2절에서는 weary 또는 wearied라는 수동적 의미로 해석된다.²⁹⁾ 그러나 전 1장 8절에서는 이 용례를 따라 수동적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나,³⁰⁾ NASB, NRSV, NIV는 능동적 의미를 가진 wearisome으로 이해한다.³¹⁾ **דְּבָרִים**을 words로 이해하기도 하고, things로 이해하기도 한다. 이 후자의 경우 이 모든 것들(**דְּבָרִים כָּ**)은 해와 바람과 강물과 기타 모든 자연물을 가리키는 것이며, **יָגִיעִים דְּבָרִים כָּ**의 의미는 모든 사물들이 중단 없이 반복되는 활동으로 지쳐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³²⁾ 바튼(G. A. Barton)은 이 구절이 4-7절의 내용 곧 계속 동일하게 순환적 행동과정을 반복하는 세상만물(해, 바람, 강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히에로니무스의 해석을 따라 어려운 문제들 또는 어려운 주제들로 이해할 수도 있다. 르낭(E. Renan)의 번역인 “Tout est difficile à expliquer”(“It is difficult to explain everything”)³³⁾은 이

29) BDB, 388쪽; G. A. Barton, *The Book of Ecclesiastes* (ICC), (Edinburgh: T & T Clark, 1912), 71, 74-75쪽.

30) G. A. Barton, *The Book of Ecclesiastes*, 74-75쪽; cf. Roland E. Murphy, *Ecclesiastes* (WBC), (Dallas: Word Books, 1992), 6쪽.

31) BDB, 388쪽.

32) G. A. Barton, *윗글*, 74쪽; 성서에서 다바르(**דְּבָר**)가 ‘사물’을 가리키기 보다는 말, 사건, 주제, 선행, 이야기, 결정, 행위, 방식 등을 나타낸다(예외, 민 31:23); cf. Abraham Joshua Heschel, *The Sabbath*, 「안식」(김 순현 역), (서울: 복있는사람, 2007), 47-49쪽.

33) G. A. Barton, *윗글*, 74쪽; cf. Ernest Renan, *Cophelet, or The Preacher*, (London: Mathieson & Company, 1843), 55쪽.

도 MT의 9절을 그대로 번역한다. 그러나 불가타에는 **ואין כל־קדש תחת** **שמים**을 분리시켜 MT의 10절에 연결하여 번역한다. 한글 성경은 이 번역전통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히에로니무스가 불가타에서는 왜 이것을 분리하여 번역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MT의 9b절을 뺀 불가타 번역은 전반부와 후반부사이의 병행이 선명함을 보여준다. 히에로니무스는 이 본문의 선택에서 이 병행구를 고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MT의 9a절에 해당되는 불가타 본문은 다음과 같다:

quid est quod fuit ipsum quod futurum est (מִדְּמָה־שֶׁהָיָה הָאֵל שֶׁהָיָה)
 quid est quod factum est ipsum quod fiendum est (מִדְּמָה־שֶׁנַּעֲשֶׂה הָאֵל שֶׁנַּעֲשֶׂה).

이것은 히브리 시에 대한 그의 문학적 감수성으로 볼 때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³⁴⁾ 히에로니무스는 그의 전도서 주석에서 9-10a절과 관련하여, 이 본문(9-10a절)은 앞에 언급된 내용들 곧 세대와 세대, 땅 덩어리, 태양의 일출과 일몰, 강물의 흐름, 바다의 거대함, 그리고 인간의 생각과 눈과 귀를 통해서 배우는 모든 것들에 대한 전체적 평가(communiter loqui)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본다. 여기에서 히에로니무스는 이 절과 이전 본문들 사이의 문맥적 관계를 지적한다. 앞에서는 이러한 개체적인 것들을 나열하였고(Videtur mihi de his quae enumeraverit), 이제 이 절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전체적이고 일반적인 평가를 내린다(communiter loqui)는 것이다. 전도자는 물질의 세계에는 이전에 이미 존재하지 않았던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quod nihil sit in natura rerum, quod non ante jam fuerit). 그리고 이 모든 창조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임을 명시한다(Deo artifice concessum est). 그리고 로마의 희극시인 테렌티우스(Terentius: B.C. 190-159)의 표현을 인용하면서 이전에 말해지지 않은 것이 말해지는 것도 없다고 말한다(Nihil est dictum, quod non sit dictum prius). 그 당시의 문학적 또는 철학적 자료들을 통한 본문의 의미를 부연설명하는 것도 히에로니무스가 자주 사용한 방법이다. 여기에서 히에로니무스는 오리게네스의 이중창조 곧 세상 만물이 실체적인 것으로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진리 로고스(divine Logos)의

34) 박 철우, “시편 1-3편의 본문 분석을 통해 살펴본 불가타 번역의 특징” 『성경원문연구』, 34-53쪽; “시편 4-5의 수사학적 분석과 불가타 성경의 번역원칙 및 유용성 연구” 『구약논단』 33집(2009년 9월), 108-130쪽.

세계안에 이데아로 존재했었다는 창조이론을 거부한다. 그리고 이 본문이 이러한 이론을 합리화하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³⁵⁾ 하나님이 창조역사를 마치시고 일곱째날 쉬었을 만큼 피조세계는 태초부터 완전히 완성된 것이었다(ab initio sic perfecta est ut requiesceret Deus ab operibus suis in die septima).

10) 10b절의 번역과 주석의 특징

10b절(MT 10절)의 히브리어는 다음과 같다:

יש דבר שי מר ראיהו זה חדש הו
דבר הנה לעלמים אשר הנה מלפניו

히에로니무스는 이것을 그의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Estne verbum de quo dicatur, vide hoc novum est: jam fuit saeculis, quae fuerunt ante nos. 여기에서 히에로니무스는 דבר을 이 단어의 보편적 의미인 ‘말’(word)로 번역한다. 그는 불가타에서 יש דבר을 מ שי와 연결하여 nec valet quisquam dicere (아무도---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표현한다(Nihil sub sole novum nec valet quisquam dicere ecce hoc recens est iam enim praecessit in saeculis quae fuerunt ante nos). 해아래 새것이 없나니, 아무도 “보라 이것이 새것이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70인역도 이러한 의미로 번역한다(“Ὁς λαλήσει καὶ ἐρεῖ, ἴδε τοῦτο καινόν ἐστιν; *Who is he that shall speak and say, Behold, this is new?*”).³⁶⁾ 불가타에서는 그의 주석에서의 지나친 직역(Estne verbum de quo dicatur: [다음과 같이] 말해 질수 있는 말이 있느냐?)을 완화하여 번역한다(nec valet quisquam dicere[아무도 ---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번역과 관련하여 그는 삼마쿠스를 인용한다(Putasne est, qui possit dicere: Vide, hoc novum est, et jam factum est in saeculo, quod fuit ante nos[너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보라 이것이 새것이다. 이미 우리 이전세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히에로니무스는 이 번역이 앞의 내용 곧 ‘이것이 새것이

35) Jerónimo, *Comentario al Eclesiastés*, 57쪽.

36) Lancelot C. L. Brenton, *The Septuagint with Apocrypha: Greek and English*, 819쪽

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내용과 일치한다고 말한다. 인간이 새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이미 이전 세대들 속에 존재하였기 때문이다(siquidem omne quod se putaverit novum ostendere, jam in prioribus saeculis fuit). 70인역과 삼마쿠스는 말하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히에로니무스는 이것을 근거로 רבבב를 verbum으로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이 주석 내용과 관련하여 히에로니무스는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이 없으며 인간이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전에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세상에서 행하시는 기적과 이사와 많은 새로운 일들도 이미 이전 세대들 속에서 일어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피력한다(Nec putemus signa, atque prodigia, et multa, quae arbitrio Dei nova in mundo fiunt, in prioribus saeculis esse jam facta). 한편, 하나님의 전지성과 예정은 또 다른 것으로 본다. 히에로니무스는 장래에 일어날 일들이 하나님의 전지성과 예정이란 차원에서는 이미 일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dicendum, quod ex praescientia et praedestinatione Dei jam ea facta sint, quae futura sunt). 동일한 맥락에서,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사람들은 이미 이전 세대에 존재했다는 점을 지적한다(Qui enim electi sunt in Christo ante constitutionem mundi, in prioribus saeculis jam fuerunt). 모든 것이 우리 이전에 존재했다고 하는 것의 이유는 하나님은 이미 영원이전부터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³⁷⁾

11) 11절의 번역과 주석의 특징

히에로니무스는 그의 주석에서 11절의 히브리 본문(MT: לֹא זָכְרוֹן עִם שִׁיְהִי לְמַחְזָקָה אֵין זְכוּרֹן לְרֵאשִׁימִים וְגַם לְאַחֲרִימִים שִׁיְהִי)을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Non est memoria primis, et quidem novissimis quae futura sunt, non erit eis memoria apud eos qui futuri sunt in novissimo³⁸⁾.

동일한 의미이지만 주석의 번역은 더 직역에 가깝다. 히에로니무스는 불가타에서 더 세련된 표현으로 더 독자중심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non est priorum memo

37) Jerónimo, *Comentario al Eclesiastés*, 59쪽

38) “No queda recuerdo de las cosas primeras; mas tampoco de las últimas que serán quedará recuerdo entre aquellos que serán en lo postrero” (Jerónimo, *Comentario al Eclesiastés*, 59쪽).

ria sed nec eorum quidem quae postea futura sunt erit recordatio apud eos qui futuri sunt in novissimo. 여기에서 특히 sed nec를 통하여 다음세대에 대한 기억도 없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postea futura sunt를 통하여 앞의 세대(priorum)와의 구별을 명백히 하고 동시에 그다음 세대(in novissimo)와의 구별도 명백히 한다. 그리고 동시에 동일한 어근의 단어를 반복하지 않음으로 내용전달의 혼란을 막는 역할도 한다(주석의 번역에서 novissimis로 primis 이후의 세대를 가리키고, novissimo를 통하여 그 다음 세대를 가리킨다). 그의 주석에서의 이 번역이 히브리어의 병행구적 특성을 더 살리는 이점은 있다. 그러나 히에로니무스는 불가타에서 표현의 유려성을 더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³⁹⁾ 물론 후자의 경우도 히브리어의 병행구적 특징이 무시된 것은 아니다. 불가타의 eorum quidem quae postea futura sunt와 eos qui futuri sunt in novissimo는 futura sunt// futuri sunt를 통하여 병행관계를 잘 표출하고 있다.

히에로니무스는 이렇게 번역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에게, 망각이 지나간 일들을 숨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태어날 사람들도 지금 일어나는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 수 없을 것이며, 이것은 결국 모든 것이 헛되다는 전도자의 말을 다시 증명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히에로니무스는 전 1장 2절의 내용을 반복함으로써 이 절이 내용상 전 1장 2절과의 병행으로 문두문미병행구(inclusio)를 이루며 2절에서 시작된 내용의 결론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리고 이 절에 대한 주석의 끝부분에서 이 절이 전 2장 16절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것임을 밝힌다(“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니니”[개역한글판] Non est memoria sapientis, cum stulto in aeternum). 한 단락의 구조적 특징에 대한 관찰과, 한 책안에서 다른 본문과의 상관관계에 주목하는 히에로니무스의 주석적 기술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본문의 기독교적 해석에 있어서,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하시어, 가장 작은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악덕으로 인하여 꼴찌가 되어야 할 사람들까지 모두를 기억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보다도, 겸손히 이 세상에서 스스로 꼴찌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광을 주실 것임을 선포한다(Et quia Deus, ut benignus et clemens, minimorum quoque, et omnium recordatur, his qui propter vitium suum novissimi in mundo esse meruerunt, non tantam dabit

39) cf. D. Brown, *Vir Trilinguis*, 113-114쪽.

gloriam, quantam his qui se humiliantes novissimi in mundo esse voluerunt).

3. 결론

전도서 1장 1-11절에 대한 히에로니무스의 주석과 번역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검토할 수 있었다.

(1) 히에로니무스는 히브리 자료 특히 아킬라, 테오도시온, 삼마쿠스 등을 인용 또는 연구함으로써 히브리적 해석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다(2, 5, 10b절).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독교론적 이해를 추론해 낸다는 의미에서 오리게네스보다 영적해석의 자의적 요소를 경감시키는 면모를 보여준다(1, 2절).

(2) 히에로니무스는 본문의 '문맥'에 대한 관찰, 본문 상호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본문의 내용전개의 특성과 내용적 구조를 파악하려 시도한다(3절, 9-10a, 11절; cf. 12절, 16절).

(3) 히에로니무스는 그의 번역에 있어 히브리적 표현과 구조와 의미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주석에서는 본문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정밀독서의 면모를 잘 보여준다(1-2, 4, 9, 11절; cf. 16절).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기독교론적 해석을 추론하려 시도한다.

(4) 그는 성경에 은유 또는 비유가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비유적 표현의 실제의미를 찾으려 시도한다(7절).

(5) 성경번역에 있어 히브리 본문의 내용은 유지하면서, 평이하고 독자지향적인 번역 곧 목표언어(라틴어)의 고유성을 잘 배려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3, 5, 11절; cf. 7절). 특히 그의 불가타 번역에서는 표현의 유려성이 많이 표출되어있다(3, 5, 10b절 [=MT 10절], cf. 16절).

히에로니무스의 번역과 주석은 현대적 관점에서 부족한 점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약 1600년 전에 행한 그의 정밀한 본문분석은 우리의 번역과 주석을 위한 '방법론적 영감'뿐 만 아니라 '본문의 구체적 해석을 위한 영감'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연구가 필요한 우리의 학문적 유산임을 보여준다.

4. 참고문헌

- 아브라함 헤셸, 「안식」 (김 순현 역), (서울: 복있는사람, 2007). 원제는 Abraham Joshua Heschel, *The Sabbath*,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LLC, , 2005, org. ed. 1951).
- 필리스 트리블, 「주사 비평:역사, 방법론, 요나서」 (유 연희 역),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07). 원제는 Phyllis Trible, *Rhetorical Criticism: Context, Method, and the Book of Jonah*, (Augsburg: Fortress, 1994).
- 유 윤중, “시편의 최근연구동향,” 「구약논단」 32집 (2009년 6월), 30-62쪽.
- 박 철우, “시편 1-3편의 본문 분석을 통해 살펴본 불가타 번역의 특징,” 「성경원문연구」 24호 (2009년 4월), 34-53쪽.
- , “시편 4-5의 수사학적 분석과 불가타 성경의 번역원칙 및 유용성 연구,” 「구약논단」 33집 (2009년 9월), 108-130쪽.
- Alonso Schökel, Luis, *Diccionario Bíblico Hebreo-Español*, (Madrid: Editorial Trotta, 1994).
- Barton, George Aaron, *The Book of Ecclesiastes* (ICC), (Edinburgh: T & T Clark, 1912).
- Bauer, Walter,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 Black, C. C. “Keeping Up with Recent Studies, pt. 16: Rhetorical Criticism and Biblical Interpretation,” *ET* 100 (1989), 252-258쪽.
- Brenton, L. C. L. *The Septuagint with Apocrypha: Greek and English*. (Grand Rapids: Zondervan, 1982).
- Brown, D. *Vir Trilinguis. A Study in the Biblical Exegesis of Saint Jerome*, (Kampen: Kok Pharos, 1992).
- Coopes, L. J. “חגל,” *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 vol. 2, (Chicago: Moody Press, 1980).
- Field, F. *Originis Hexapla*, II, (Hildesheim: Georg Olms Verlagsbuchhandlung, 1964).
- Fishbane, M. *Text and Texture: Close Readings of Selected Biblical Texts*, (Oxford: Oneworld Publications, 1979).
- Glasser, Étienne, *Le procès du bonheur par Qohelet*, (Paris: Les Éditions du CERF, 1970).
- Howard, Jr. David M. “Recent Trends in Psalms Study,” D. W. Baker and B. T. Arnold(eds.), *The Face of Old Testament Studies: A Survey of Contemporary Approaches*, (Grand Rapids: Bakers, 1999), 329-368쪽.
- Jay, P. “Jérôme et la pratique de l'exégèse,” en J. Fontaine - Ch. Pietri(eds), *Le monde latin antique et la Bible*, (Paris, 1985).

- _____. *L'exégèse de saint Jérôme d'après son Commentaire sur Isaïe*, (Paris, 1985).
- Jenni, E. “עולם 'ōlām eternity,” *Theological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vol. 2, E. Jenni/ C. Westermann, (eds.),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997).
- Jerónimo, *Comentario al Eclesiastés: Introducción, traducción y notas de José Boira Sales* (Biblioteca de Patrística 64), (Madrid: Editorial Ciudad Nueva, 2004).
- _____. *S. Hieronymi presbyteri opera*, Pars I. Opera exegetica, Corpus Christianorum, (Turnholti: Brepols, 1959).
- Kelly, D. *Jerome, His Life, Writings, and Controversies*,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975).
- Koehler, L./Baumgartner, W. *The Hebrew & Aramaic Lexicon of the O.T.*, (Brill Academic Publishers, 2002).
- LaSor, William Sanford, “Wadi,” *ISBE*, vol. 4,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1988), 1001쪽.
- Lust, J./Eynikel, E./Hauspie, K. eds.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Septuagint*,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3).
- McCann, Jr. J. Clinton, “The Shape of Book I of the Psalter and the Shape of Human Happiness,” *The Book of Psalms: Composition and Reception* (VTSup 99), Peter W. Flint, et al.(eds.), (Leiden: Brill, 2005), 340-348쪽.
- Miller, Douglas B. *Symbol and Rhetoric in Ecclesiastes: The Place of Hebel in Qohelet's Work*,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2).
- Murphy, Roland E. *Ecclesiastes* (WBC), (Dallas: Word Books, 1992).
- Orígenes, *Homilias sobre el cantar de los cantares: Introducción, traducción y notas de Samuel Fernández Eyzaguirre*, (Madrid: Ciudad Nueva, 2000).
- _____. *Comentario al cantar de los cantares: Introducción y notas de Manlio Simone tti: Traducción del latín de Argimiro Velasco Delgado* (Biblioteca de Patrística 1), (Madrid: Ciudad Nueva, 2007).
- Renan, Ernest, *Chelet, or The Preacher*, (London: Mathieson & Company, 1843).
- Wueller, W. “Where Is Rhetorical Criticism Taking Us?,” *CBQ* 49 (1987), 448-463쪽.

검색어

히에로니무스
전도서
주석방법론
번역
정밀독서

A Study on the particularities of Jerome's Translation and Exegesis of Eccl. 1:1-11

Cheol Woo Park, Ph. D.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Theology,
Korea Nazarene University

Jerome's exegesis and translation of Ecclesiastes, written 1600 years ago, shows methodological particularities now being rediscovered in modern biblical hermeneutics.

This study on Jerome's exegesis and translation on Ecclesiastes 1:1-11 shows the following particularities:

(1) Jerome tried to be faithful to the Hebraic understanding of the text on the basis of the study of Hebrew materials, such as Aquila, Theodocion, Symmachus, etc.(vv. 2, 5, 10b). Showing Christ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text on the basis of the clear understanding of the Hebrew text, he succeeded to reduce the subjective element of Origin's spiritual(allegorical) interpretation

of the biblical text.

(2) Jerome tried to perceive the particularities of the development and the structure of the contents of the text on the basis of the observation of the textual context and the textual interrelationship(vv. 3, 9–10a, 11; cf. vv. 12, 16).

(3) Jerome tried to be faithful to Hebraic expression, structure and meaning in his translation and showed the practice of close reading with his careful observation and analysis of the text in his exegesis(vv. 1–2, 4, 9, 11; cf. v. 16). He tried to single out Christological meanings on this basis.

(4) He tried to find out the real meaning of the text wrapped in the metaphoric expression(v. 7).

(5) In his translation he tried to reflect the own characteristics of target language(Latin) with his reader-oriented translation, while maintaining the contents of the Hebrew text(vv. 3, 5, 11; cf. v. 7). Especially he tried to represent the elegance and fluency of the Latin expression in his Vulgate(vv. 3, 5, 10b[=MT v. 10], cf. v. 16).

It cannot be denied there was some deficiency in his exegesis and translation from the modern point of view. But his close analysis of the biblical text provides lots of interpretative insights for us not only for the methodological principles of the translation and exegesis of the text but also for solving interpretative matters unsolved yet.

Key words

Jerome

Ecclesiastes

method of exegesis

translation

close reading

■투고일: 2010년 12월 15일

■심사일: 2011년 1월 30일

■게제확정일: 2011년 2월 21일